

“여성이 변해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성불자 리더십 교육에 참가한 부산여성불자회 회원들이 생활 속 불법실천 방법과 여성지도자 덕목 등을 경험하고 있다.

부산여성불자회 '리더십 교육' 특강 "세상만물 부처님처럼 공경"이 최고

“여성불자들이 셀프 리더십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잘 공양하고 미소공양, 칭찬 공양, 말공양 등 다양한 방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불국토임을 깨닫게 됩니다.” 1월 14일 부산시청 동백출에서 열린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 신년 하례회는 ‘여성불자들의 리더십 교육’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 50여명의 여성불자들이 참여한 이날 강의에서는 김남선(53, 서울 참교교육상담소) 소장은 때론 법문 같은 깊이와 때론 수다

같은 친근함으로 피부에 와 닿는 열정을 펼쳤다. 김남선 소장은 여성불교개발원에서 교육부장을 지낸 불자로 왕선자 회장과 함께 여성불교개발원에서 활동한 인연으로 부산까지 한걸음에 달려왔다. 부산여성불자회가 스님이 아닌 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특강에서 김 소장은 “진정한 지도자는 상대를 비추어주는 거울 역할을 하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주면서 세상 만물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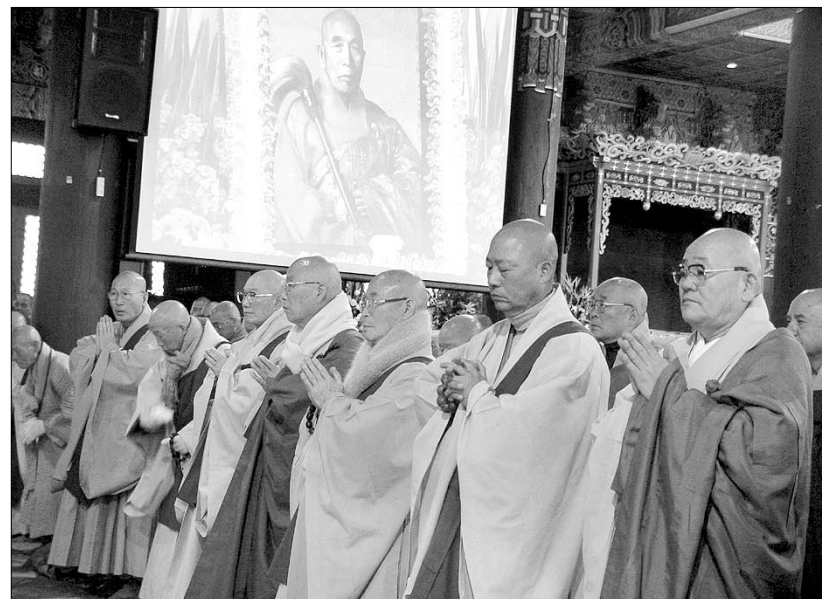
강의를 들은 부산여성불자회 류경자 총무는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여성불교지도자 되기 위한 덕목을 알게 됐다”고 흡족해 했다.

왕선자 회장은 “각 사찰에서 신도회 회장이나 총무 등을 맡고 있는 사람이 많아 리더십 교육이 절실했다”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전문적이고 실천적 체현에서 우리나라는 내용의 특강을 마련해 여성불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여성불자회는 3월 10일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스님과 파라미타 부산산지부 학생 등에게 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성을 깨달아 진정한 대장부 되세요”



1월 14일 봉행된 노천당 월하 스님 49재 추모법회.

노천당 월하 스님 49재 추모법회 문도, 각 기관장 등 3천여명 참석

지난해 12월 4일 입적한 노천당 월하 스님의 49재 추모법회가 1월 1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명종 5타로 시작된 이날 추모법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 원로스님, 문도 그리고 각급 기관장 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2백여 문도의 헌화와 헌다에 이어 행장 소개, 육성법문, 추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달아 진정한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육성법문이 생전 모습과 함께 나오자 눈시울을 적시는 불자들이 있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불조의 해명을 얻어 보아신 스님의 뜻을 받들어 종단회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도사와 문도측은 “월하 스님의 49재 회향일은 21일이지만 설날 하루 전이라 귀성과 교포혼상 등이 예상돼 6차례 49재 추모 회향일로 정했다”고 밝히고 “다비시 결과 사리가 나왔으나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전국 곳곳 나눔의 법향 ‘물씬’

설날을 맞아 불우이웃과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전국 곳곳에서 피어올랐다.

마산왕원불교연합회(회장 지태)와 사단법인 금강자비회(이사장 노화순)는 1월 15일 마산시청 6층 회의실에서 제14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날 모자친 성금 4천만원은 저소득 가정 50세대(2천만원)와 청소년 장학금(7백 20만원),

무의탁 노인들 백미구입(5백만원), 가보요양원 법당 및 환우(5백만원) 등에게 전달됐다. 황철근 마산시장, 지대 스님 등이 참석해 이날 행사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초청해 마산 선재 어린이집 원아들의 재롱잔치, 삼학사천불단의 천불공양,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문 낭독 등

을 함께 해 훈훈함을 더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도 설 떡국 나누기, 차례지내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대표적으로 서울 은평노인복지관(관장 고재욱)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인근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무의탁 노인 200여명에게 떡국 200kg을 나눠주었으며, 서울 강북장애

금강자비회·부산 삼광사 등 설날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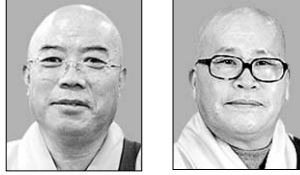
인홍사 외국인 노동자와 웃음이 한판

인북복지관은 관내 장애인들에게 쌀 80포를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들이 대상으로 전통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두송복지관(관장 지현) 역시 15일 복지관내 경로식당에서 ‘기쁨의 쌀’ 전달식을 갖고 저소득 가정 1백 세대에 쌀을 전달했다. 이외에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

은 17일 법당당 2층 향적당에서 성금 전달식을 갖고 부산시에서 추천을 받은 초음동 30세대, 부산진구 30세대를 비롯한 1백 세대에게 1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범어사 승가대학 소속 학인 스님 20여명은 거리 탁발(시주)을 해 모은 성금 126만원을 지난 6일 금강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여애)에 기탁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떡국 행사도 있다. 조계종 안홍사(주지 장재)는 22일 설날(음력 1월1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청해 차례를 함께 지내고 떡국을 나눠 먹는다. 웃음이 한마당과 함께 진행될 이날 행사는 외국인 스님들도 참석해 외국에서 명절을 맞는 노동자들의 위로를 달래 예정이다. 천미희·한상희·배지선 기자

기장군 사암연·사하불교연 새 회장 취임, 지역발전 다짐



남운 스님 (왼쪽)과 범혜 스님 (오른쪽)

부산 기장군 불교사암연합회와 사하불교 연합회가 신임회장 취임법회를 갖고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활동을 다짐했다.

기장군 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 10일 해운대 글로리로드 18층 임시법당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 회합을 열고 신임회장으로 범혜 스님(도선사 주지)을 추대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최현돌 기장군수 등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자리에서 범혜 스님은 “정당한 수행으로 승가를 바로 세우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천미희·한상희·배지선 기자

사하 불교연합회도 지난 10일 하단동 사파이어호텔 4층에서 남운 스님(남운정사 주지)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하고 해인정사 주진 스님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했다. 남운 스님은 취임사에서 “사하 지역의 불교발전뿐 아니라 부산지역 전체의 불교발전을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 전달, 불우이웃돕기 등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용호복지관 언어치료센터 개소

용호복지관(관장 혜춘)은 2월 경 언어치료센터를 개소하고 언어의 표현 및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언어발달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언어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하게 되는 용호언어치료센터(가칭)는 36개월부터 초등부까지를 대상으로 각 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051)628-6737 천미희 기자

새해는 달마 氣 받고 평안했으면...



“2004년은 세상이 두루 평안하고, 누구나 웃으며 살 수 있는 한 해였으면 합니다.”

2004년에는 모든 이들이 힘들지 않고 웃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그린 달마도 2천4점을 보시하는 화가 봉암 백남운(52, 백씨는 “2004년이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못 짓도 2천4명에게

라도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며 “그림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복된 기운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백씨가 달마도 보시 발원을 한 것은 새해 첫날 팔공산 정상에서다. 백씨는 정상에서 지하철사고와 태풍매미가 휩쓸고 간 쓰러진 상자들이 남아있는 대구지역 사람들의 한숨 섞인 기원을 들었다.

백남운 씨 ‘달마도 2천4점 보시’

대구 지역민의 아픔 듣고 작업 시작

그 길로 내려와 팔공산 작업실에서 달마도를 그렸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달마도를 나눠주고 있다. 14회의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는 그는 2003년 부처님오신날에 8m×12m의 최대그림을 그리는 이벤트를 가졌고, 달마도 액자 209개를 창녕지역 경로당에 기증한 바 있다. 011-9493-6615 팔공산=배지선 기자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정리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불교통신대학·대학원 강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희망하는 학인들을 위한 나란다삼장불학원, 천수바라춤과 공양무를 중심으로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우는 불교예술대학 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나란다삼장불학원	불교예술대학
모집기간	수시모집	수시모집	2004년 3월 3일까지	수시모집
모집인원	무제한	무제한	30명	약간명
수업연한	2년(4학기)	경,울,론 각과정 1년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과정별 6개월	기초, 중등, 고등, 대학 각 6개월
수업방법	가정, 직장에서 통신으로 (년2회수련대회)	가정, 직장에서 통신으로 (년2회수련대회)	매주 1일 수업	매주 1일 수업
지원자격	불교를 적극적으로 신봉하시는 분	불교통신대학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소지자	출가수행 및 사암, 포교원 운영하실 분	불교전통예술에 관심있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원서교부	수시	수시	2004년 3월 3일까지	수시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서류전형 및 면접	서류전형 및 면접
특전	·전פשר 자격증수여 ·포교활동 지원 ·사찰운영 행정지원	·법사, 포교사 자격증수여 ·포교활동 지원 ·사찰운영 행정지원	·2004년 국제수계 참가자격부여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기숙사 입사 희망자 집중수련	우수 학생에게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전수자격증 수여
교수진	활인(한정섭)스님, 김호암스님, 남진각스님, 김진걸교수님, 이지행교수님, 김익순교수님, 서무선박사님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나란다삼장불학원, 불교예술대학
학장 활인(한정섭), 대학원장 호암(김정수), 예술대학장 남진각
문의처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